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멀티미디어 시대 주도

광반도체 소자 및 광센서 전문 메이커

퍼스널 컴퓨터가 세상에 태어나고 메모리 IC의 집적도가 첨단기술의 기준으로 인식되며 국내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태동되던 시기에 전북 익산에서 광반도체 종합 메이커로 출발한 한국고덴시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공급을 통해 세계의 가전 및 OA기기, 산업용기기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해왔다.

1980년 중도광화 (이기태) 회장이 전자 및 반도체의 불모지인 전라북도 익산 자유무역지역내에 설립한 이래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30%의 고도성장과 생산제품의 80% 이상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광반도체소자 및 광센서 전문메이커로서 그동안 축적된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광반도체 및 응용부품, 전자부품, 전자회로 등의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로 Opto Electronics업계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창조하여 왔다.

특히 국내 최초로 Photo coupler를 개발하여 일본 유럽에

의해 좌우되던 국내 시장가를 떨어 뜨렸고 영상산업의 총아로 불리는 옥외용 대형 전광판 및 지하철에 사용되는 실내용 전광판의 기본 제품인 LDM, PIXEL을 개발, 공급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데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광반도체 전문 제조회사로서 창사 이래 Opto-electronics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터운 기술인력과 축적된 Know-how를 바탕으로 Wafer process에서 광소자 및 그 응용기기에 이르기까지 일관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여 미래산업의 발달과 인류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일조를 다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기술 인프라 구축

이 회사의 사장은 “생산된 제품의 80% 이상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특성상 우리의 경쟁 상대는 세계의 시장을 놓고 다투는 기술 선진국의 업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개발과 생산성 제고, 그리고 품질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전세계 고객의 요망에 부응하는 제품과 품질을 창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며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사는 WAFER PROCESS 에서 MODULE까지 종합부품 메이커로써 한국의 PHOTO SENSOR 류의 독보성을 확보하고 세계적 대기업에의 안정적 판매신장과 다품종 소량생산의 LINE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왔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두터운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광반도체의 설계, 개발에서 Wafer Process, 조립, 어셈블리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고덴시 그룹에서 실시하는 일관생산 시





시스템을 확립과 일본, 한국, 중국의 3국 생산체제를 통해 세계 시장을 향한 원활한 공급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 단납기, 커스텀제품이라고 하는 요망에 신뢰의 품질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고덴시의 제품은 아이템 하나 하나가 별도의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성과 독창성을 보유하고 있고,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않고는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시장성 측면에서는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무한한 잠재수요가 존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주요 아이템은 광반도체소자인 Photo Diodes, Photo Transistors, Position Sensors, Photo Couplers, PhotoInterruptors, Encoders, Hybrid Ass'y, Optic Receiver Modules, Photo ICs and ICs, LED Print Heads과 광반도체 장비인 Mold Die, Tester & Handler, Trimming & Forming System, Laser Marking System 등을 생산, 제작하고 있다.

광기술을 응용한 관련 산업진출 모색

주요 수출국인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미국 등이며, 2000년 매출 추정액은 1500억원으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개발 기술력과 제조능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멀티미디어 시대를 주도할 광반도체전문 제조회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또한 기획 개발력과 종합 생산기술을 결합하여 소자,

MODULE등 광부품에 그치지 않고 세트 및 시스템생산에 필요한 PCB조립, PRESS, 사출성형 등 총체적인 생산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시대를 향한 TELICOM기기 및 대화면의 LED, LDM, PIXEL의 다양한 기술을 결합하여 광기술을 응용한 정보통신기기 및 화상시스템 등에도 과감히 도전하고 있다. 

